

醫書에 나타난 朝鮮 鍼灸擇日法の 발전과정

¹오준호, ²차웅석, ²김남일

¹통일부 하나원, ²경희대학교 의사학교실

The Develop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Fix-a-day Method Shown In The Acupuncture Documents Of The Chosun-Korea Dynasty

¹Jun-Ho Oh, ²Wung-Seok Cha, ²Nam-Il Kim

¹Ministry of Unification, Settlement Support Center for North Korean Refugees(Hanawon)

²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is of Acupuncture & Moxibustion Fix-a-day Method (AMFDM) shown in the acupuncture documents of the Chosun-Korea dynasty. Through such inquisiti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AMFDM could be found.

cross-comparison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ree medical books, Chim-Gu-Tek-Il-Pien-Zip(CGTIPZ), Dong-Eui-Bo-Gam(DEBG) and Chim-Gu-Gyung-Hum-Bang (CGGHB) of the Chosun-Korea dynasty.

The development process of AMFDM of the three books is different from each other, depending on the purpose of writing books. But The three books contain common parts. It could be divided into three types, Simple-AMFDM, Extensive-AMFDM and Spirit-Existence-AMFDM.

The development process of AMFDM of the Chosun-Korea dynasty has three steps.

First, Integration and specialization phase in CGTIPZ. CGTIPZ sum many kind of AMFDMs up, and compare them to be specialized area.

Second, Setting theory phase in DEBG. DEBG theorize AMFDM made of Spirit-Existence-AMFDM.

Third, Practical use phase in CGGHB. CGGHB invented practical reinforcement to replace complicated ones.

Keywords : acupuncture and moxibustion, day-prescription of points, hour-prescription of points

I. 서론

한의학에서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천지의 기운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의 기운과 천지의 기운은 항상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고 인식되어 왔다. 한의학에 존재하는 外感, 六淫, 邪氣의 개념은 천지간의 기운과 인간의 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질병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다.

인간과 천지의 기운이 영향을 주고 받기 위해서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다. 한의학에서는 經絡이 이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경락은 인체의 가장 바깥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體外와 體內를 연결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상들을 바탕으로 운기학과 침구학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鍼灸擇日法이다.¹⁾ 침구택일의 목적은 인간과 천지가 조화를 이루기 좋은 날인吉日과, 반대로 부조화가 심해진 때를 의미하는 兪日을 구분하는 것이다.

조선 침구학에서는 침구택일법을 의사들만의 고유한 전문 영역으로 여겼으며, 침구치료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으로 여겨졌다. 이미 조선초에는 침구택일법을 전문적으로 신고 있는 『鍼灸擇日編集』이 만들어 졌으며, 『東醫寶

접수 ▶ 2009년 12월 4일 수정 ▶ 2009년 12월 9일 채택 ▶ 2009년 12월 15일
교신저자 ▶ 김남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02-961-0672 E-mai: southkim@khu.ac.kr

鑑, 『鍼灸經驗方』에서도 이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 의서에 나타난 침구택일법의 내용을 고찰하고 이를 상호 비교해 보았다. 연구 대상은 『鍼灸擇日編集』, 『東醫寶鑑』, 『鍼灸經驗方』 세 의서로 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을 통해 침구택일법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였고 그 의미를 밝혀 보았다.

II. 본론

1. 의서에 나타난 침구택일법의 내용

1) 『鍼灸擇日編集』의 구성과 내용

『鍼灸擇日編集』²⁾은 조선 초기에 편찬된 침구서로서 세종 27년(1445) 醫官 全循義와 金義孫이 함께 저술하여 세종 29년(1447) 간행하였다.³⁾ 침구택일만을 전문적으로 다룬 서적으로는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서적에 나와 있는 침구택일법을 비교하여 정리해 놓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鍼灸擇日編集』에 인용된 서적은 『孫真人備急千金方』, 『黃帝明堂灸經』, 『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 『太平聖惠方』, 『寶漢卿編集鍼經指南』, 『新刊銅人鍼灸經』, 『鍼灸廣愛書括』, 『事林廣記』, 『齊人千金月令』, 『元龜集』, 『龍木總論』, 『資生經』, 『素問靈樞經』, 『巢氏病源論』, 『易簡方』, 『龍樹菩薩眼論』 등 16개이다. 책은 『千金方』의 침구택일법을 기준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서적에 따라 내용이 다른 부분은 이를 상호 비교하여 주석으로 적었다.

『鍼灸擇日編集』의 내용을 개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鍼灸吉日」에서는 丁卯, 丁亥, 庚午 등 천간지지로 침구를 행하기 좋은 날을 설명하였다.

「推天醫吉日及雜忌傍通法」에서는 12달에 따라 天醫, 血忌, 血支, 月厭, 月忌, 大殺, 月殺, 月刑, 月害의 날을 제시하였다. 天醫의 경우 正月에는 卯日, 二月에는 寅日, 三月에는 丑日 등이다. 天醫는吉한 날, 나머지는凶한 날이다. 이에 따르면 五月의 경우 기한 날은 天醫인 亥日이며, 흉한 날은 순서에 따라 卯日 · 巳日 · 午日 · 丑日 · 寅日 · 丑日 · 午日 · 丑日이 된다.

「千金方忌鍼灸法」에서는 침구를 행하기에 흉한 날들을 설명해 놓았다. 그 기준도 여러 가지여서 음력일을 기준으로 한 것, 天干地支를 기준으로 한 것, 특정일에 시간을 제

시한 것, 病者가 태어난 운기의 五行에 따른 것 등이다.

「千金方推四時人神忌」에는 봄에는 왼쪽 옆구리, 여름에는 배꼽, 가을에는 오른쪽 옆구리, 겨울에는 허리에 人神이 머문다고 하였다. 기본적으로 人神이 머무는 자리에는 시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千金方十二支人神忌」, 「千金方十干人神忌」, 「千金方逐時人神忌」 역시 人神이 머무는 곳을 설명하였는데, 각각 十二支日, 十干日, 十二時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千金方日辰忌」 또한 음력 한달 사이에 人神이 머무는 곳을 설명하였고, 「千金方十二部人神忌」에서는 시간에 따른 人神의 소재를 설명하였다.

「千金方鍼灸忌日」에서는 남녀 금기일을 실고 있다.

「千金方忌鍼灸法」에서는 절기일에 오행상 相剋관계에 있는 장부를 치료해선 안된다고 하였다. 「腧穴經四時太一神忌」에서는 절기와 甲子日 배속에 따라 치료해서는 안되는 인체부위를 설명하였는데, 앞서 나온 人神의 개념과 유사하다.

「腧穴經太一人神忌」에서는 一年을 8개의 절기로 나누고, 한 절기를 구성하는 45日 각각에 人神이 머무는 부위를 나누어 치료를 피해야할 부위를 적어 놓았다.

「千金方九部人神忌」, 「明堂經尻神法」, 「千金方推十二部人神法」, 「病源論年人神忌」 등도 유사한 논리의 설명들이 이어 지는데, 기준일이 각각 90일, 90일, 96일, 100일인 것에 차이가 있다.

책의 마지막에는 「龍樹菩薩眼論醫眼禁忌日」, 「鍼經雜忌法」, 「明堂經候天色法」, 「易簡方灸膏肓忌法」, 「資生經灸艾雜說法」, 「資生經點艾火法」, 「莊季裕灸膏肓忌法」를 실어 서적에 따라 고유하게 실려 있는 특수 금기법들을 모아 놓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鍼灸擇日編集』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鍼灸吉日」에서 「千金方忌鍼灸法」까지로, 침구를 적극적으로 행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회피해야 할吉凶의 날짜 혹은 시간을 제시한 부분이다. 둘째, 「千金方推四時人神忌」에서 「病源論年人神忌」까지로 人神이 시간에 따라 움직인다는 전제 아래 人神이 머무는 인체 부위를 설명하고 이 부분에 대한 침구시술을 경계한 부분이다. 셋째, 「龍樹菩薩眼論醫眼禁忌日」에서 「莊季裕灸膏肓忌法」까지로 擇日의 내용뿐만 아니라 날씨, 인체 상태, 기법상의 문제들을 들어 침구의

길흉을 설명한 부분이다.

2) 『東醫寶鑑』 택일법의 구성과 내용목차

『東醫寶鑑』⁴⁾은 조선중기 許浚의 저작으로 종합의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침구에 관해서도 방대한 내용을 싣고 있다.⁵⁾ 『東醫寶鑑』의 침구택일법은 책의 마지막 편인 「鍼灸篇」 중에서도 가장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본문의 기록을 참고해 보면 주로 『靈樞』, 『針灸資生經』, 『醫學入門』, 『神應經』의 서적을 참고하였으며 「每月諸神直日避忌傍通圖」의 경우 『鍼灸書』라고 밝힌 부분도 있다.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擇鍼灸吉日法」에서는 침구택일의 대강을 설명하였는데, 일상적인 치료에서는 行年宜忌과 人神所在를 파악하여 시술해야 하며, 병증이 급박한 癰疽·疔腫·喉痺·客忤 및 中風卒急之證에는 禁忌에 구애받지 않고 치료한다고 하였다.

「太乙徒立於中宮八風占吉凶」은 『靈樞』의 八風과 虛邪의 논의를 끌어온 것인데, 風從南方來, 風從西南來, 風從西方來, 風從西北來, 風從北方來, 風從東北來, 風從東方來, 風從東南方來 등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사기의 종류를 나누고 각각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九宮圖」는 八卦에 중양을 합하여 九宮을 규정하고, 여기에 방위와 시간 및 인체부위를 배속한 그림이다. 艮의 경우 東北方, 立春에 해당하는 天留宮으로 左脚을 금기로 삼고 있다. 부연된 설명을 보면, 太乙이 하나의 궁에 46일씩 머물러 8개의 궁을 지나며, 하나의 궁에는 9일씩 5번 순환하게 된다고 하였다. 「身形應九野」의 내용 또한 『靈樞』의 九野에 대한 설명으로 九宮圖의 그것과 개념상 유사하다.

「九宮圖」에서 설명된 太乙의 움직임이 실제 鍼灸禁忌에 어떻게 응용되는지는 「太乙遊八節日數」에 보인다. 여기에서는 立春節, 春分節, 立夏節, 夏至節, 立秋節, 秋分節, 立冬節, 冬至節의 절기에 따라 9일을 단위로 太乙이 인체에 머무는 장소 즉 치료를 해서는 안되는 인체 부위를 배속해 놓았다.

「九宮屍神圖」와 「九宮屍神禁忌」에서는 인체의 부위를 八卦에 배속했다는 점에서 「九宮圖」와 유사하지만, 배속이 서로 다르고 날짜에 대한 개념이 설명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逐日人神所在」는 30일을 기준으로 人神의 움직임을 설명한 것으로 음력 한 달의 기간과 일치한다. 여기서의 人神

은 「九宮圖」에서 설명된 太乙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人神이 머물고 있는 곳은 치료해서는 안된다. 특히 여기에는 太陰分, 陽明分 등 三陽三陰에 대한 개념이 함께 들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每月諸神直日避忌傍通圖」는 일년 열두 달의 吉日과 凶日을 표로 그린 것으로 月厭, 月忌, 月殺, 月刑, 大殺, 六害, 血忌, 血支, 天醫, 季忌, 天減, 癰疽, 不向의 항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鍼灸吉日」 및 「鍼灸忌日」에서는 吉日과 凶日을 天干地支를 통해 규정하였고, 「向法」에서는 계절에 따라 침구 시술시 환자의 앉는 방향을 설명하였다.

『東醫寶鑑』 침구택일법을 내용으로 구분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방위에 따라 八風과 虛事에 대해 논의한 「太乙徒立於中宮八風占吉凶」과 「向法」이다. 방위를 중심으로 한 공간적인 개념을 담고 있다. 전자는 『靈樞』의 내용을, 후자는 『醫學入門』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둘째, 太乙 혹은 人神의 所在에 따라 금기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九宮圖」에서 「逐日人神所在」까지의 내용이 그것이다. 人神의 이동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함께 담고 있다. 『銅人經』, 『靈樞』, 『鍼灸書』, 『醫學入門』, 『神應經』을 인용서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天干地支로 吉日과 凶日을 정리한 「每月諸神直日避忌傍通圖」, 「鍼灸吉日」, 「鍼灸忌日」의 세 편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시간적인 입장에서 침구를 행하기 좋은 날과 좋지 않은 날을 적고 있다.

3) 『鍼灸經驗方』 택일법의 구성과 내용

『鍼灸經驗方』⁶⁾은 조선을 대표하는 침구전문서로서 인조22년(1644) 허임이 저술하였다.⁷⁾ 『鍼灸經驗方』은 임상에서의 실용성을 강조한 의서로서⁸⁾ 침구택일법을 간결하면서 요약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鍼灸經驗方』의 택일법 역시 책의 말미에 실려 있다. 첫머리에는 후천팔괘와 왼손바닥에 九宮圖를 배속한 그림, 그리고 九宮數가 적혀 있다. 이는 『東醫寶鑑』에 실려 있는 九宮圖와 사실상 같은 것이지만, 실제로 침구들이 이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鍼灸吉日」과 「鍼灸忌日」은 天干地支를 통해 吉日과 忌日을 규정하였다.

「每月諸神直日避忌傍通圖」에서는 月厭, 月忌, 月殺, 月刑, 大殺, 六害, 血忌, 血支, 天醫, 天減에 항목에 따라 열두 달에 해당하는 吉日과 忌日을 언급하였다.

종류	『鍼灸擇日編集』	『東醫寶鑑』	『鍼灸經驗方』	비고
單純擇日法	鍼灸吉日	鍼灸吉日	鍼灸吉日	吉日과 忌日を 직접 제시
	千金方忌鍼灸法	鍼灸忌日	鍼灸忌日	
	千金方鍼灸忌日			
傍通擇日法	推天醫吉日及雜忌傍通法 <癩瘡과 不向의 내용 없음>	每月諸神直日避忌傍通圖	每月諸神直日避忌傍通圖, 癩瘡, 不向	12달 각각에 吉日과 忌日 구분
人神所在法	千金方日辰忌	逐日人神所在	<내용없음>	시간에 따른 太乙, 人神의 이동을 통해 침구 금기 규정
	膻穴經四時太一神忌	身形應九野	<내용없음>	
	<내용없음>	九宮圖	(手掌圖)*, 九宮數	
	膻穴經太一人神忌	太乙遊八節日數	太乙遊入節日數	

* ‘(手掌圖)’는 제목이 붙어 있지 않아 임의로 제목을 붙인 것임

Table 1. Compare the Title of the Same or Similar Contents

이어 「癩瘡」에서는 癩瘡日을 七言絶句로 실었고, 「不向」에서는 정월, 오월, 구월에는 동쪽으로 앉지 말아야 한다 식으로 앉지 말아야 할 방향을 적어 놓았다.

마지막으로 「太乙遊入節日數」에서는 표를 통해 절기에 따른 太乙의 이동을 통해 시술을 피해야 할 인체 부위를 적어 놓았다. 이는 『東醫寶鑑』에서 장황하게 설명해 놓은 「太乙遊八節日數」를 압축하여 나타낸 것이다.

말미에는 “通人達士는 이러한 예에 얽매이지 않는다.”(方云通人達士不拘此例云云)라고 적고 鍼灸擇日法이 절대적인 원칙은 아님을 설명하였다.

2. 침구택일법의 비교

『鍼灸擇日編集』, 『東醫寶鑑』, 『鍼灸經驗方』은 기본적으로 저술 동기에 따라 각기 다른 구성 방식과 설명 방법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鍼灸擇日法들은 상당히 많은 유사점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문을 나열해 보면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서적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擇日法은 성격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각각 ‘단순택일법’, ‘방통택일법’, ‘인신소재법’이라고 명명하고 설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겠다.

1) 單純擇日法

첫째, 단순택일법은 鍼灸吉日과 鍼灸忌日을 특정한 기준으로 하나의 날짜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즉, ‘甲戌日은 吉日이다.’, ‘正月 丑日은 月殺로 忌日이다.’는 식으로 날짜가 고정된다. 택일 선정의 기준이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택

일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이 天干地支와 陰曆이다. 날짜를 규정하는 방법으로서 당시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었던 방식이 天干地支의 六十甲子를 이용한 방법과 달의 모양을 통해 한 달을 규정하는 陰曆의 방식임을 감안했을 때 당연한 현상이다.

鍼灸擇日에 관해 吉日과 忌日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鍼灸吉日은 대부분 干支를 이용하여 표현되어 있다. 鍼灸吉日이 甲辰, 甲申, 甲戌이라고 하면 해당 일의 干支가 여기에 해당되는 날이 바로 침구길일이 되는 것이다. 鍼灸忌日의 경우에는 干支 뿐만 아니라 음력일, 절기, 달의 모양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남녀에 따라 忌日이 다른 것도 특징이다.

세 서적에서 吉日과 忌日을 설명하는 방식은 대동소이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인 비교를 위해 <Table 2>에서는 ‘吉日’을, <Table 3>에서는 ‘忌日’을 각각 비교하였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 서적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鍼灸擇日編集』과 『鍼灸經驗方』의 유사성이 높았으며 『東醫寶鑑』의 경우 비교적 여러 곳에서 차이를 보였다. 제시된 개수 또한 『東醫寶鑑』이 가장 많고 『鍼灸經驗方』이 가장 적었다. 이런 차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吉日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편집자들의 견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인데, 『東醫寶鑑』에서는 최대한 받아들이고 있는데 반해 『鍼灸經驗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수용하려고 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醫學入門』에 나와있는 鍼灸吉日이다. 『東醫寶鑑』의 鍼灸吉日이 의학입문과 유사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비교를 하였으나 오히려 『鍼灸擇日編集』

天干	『鍼灸擇日編集』	『東醫寶鑑』	『鍼灸經驗方』
甲	-	甲寅	-
	甲辰	-	-
	甲申	甲申	甲申
	甲戌	甲戌	甲戌
乙	-	乙丑	-
	乙卯	乙卯	-
	乙巳	乙巳	乙巳
	-	乙亥	-
丙	丙子	丙子	丙子
	(丙辰)	-	-
	丙午	丙午	丙午
	丙申	丙申	丙申
	(丙戌)	丙戌	丙戌
丁	(丁丑)	丁丑	丁丑
	丁卯	丁卯	丁卯
	丁亥	丁亥	丁亥
戊	戊申	戊申	戊申
	戊戌	戊戌	戊戌
己	己未	-	-
	己亥	己亥	己亥
庚	庚子	庚子	庚子
	庚午	庚午	庚午
	-	庚申	-
	-	庚戌	-
辛	(辛丑)	辛丑	-
	辛卯	辛卯	辛卯
	-	辛亥	-
壬	壬子	壬子	壬子
	壬辰	-	-
	壬午	壬午	壬午
	-	壬申	-
	(壬戌)	壬戌	壬戌
癸	(癸丑)	癸丑	癸丑
	-	癸未	-

* 『鍼灸擇日編集』에 ‘()’ 표시는 인용서적에 따라 드나듦이 있는 경우를 표시
 * 짙은 색은 세 서적 모두 같은 내용을 표시

Table 2. Compare the AMFDM of Three Books - Similarities

』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전근대시대 서적들이 판본들 사이에서도 내용상의 차이가 나타남을 감안한다면 『鍼灸擇日編集』과 의학입문의 침구질일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鍼灸擇日編集』이 명나라 의서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이다.

鍼灸忌日は吉日에 비해 음력일, 절기, 달 모양 등 기준이 다양해 졌으며 남녀에 따른 구분이 등장했다는 점이 특징

이다. 서적 간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고루 나타난다. 달의 모양과 관련된 금기는 『鍼灸擇日編集』에는 나타나지 않고 『東醫寶鑑』과 『鍼灸經驗方』에 나타나고 있다. 또 甲辰 등 11개 날을 금기일로 지정한 『鍼灸擇日編集』의 내용은 이후 다른 의서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다. 『東醫寶鑑』의 경우 다른 서적에는 없는 患者의 생일, 未辛日, 戊巳日 등을 忌日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구분	기준	『鍼灸擇日編集』	『東醫寶鑑』	『鍼灸經驗方』
공통적인 내용	음력일	初六	初六	初六
		初十五	-	-
		-	初十六	初十六
		初十八	初十八	初十八
		二十二	二十二	二十二
		二十四	二十四	二十四
	小盡日	小盡日	小盡日	
	십이지	五辰, 五酉, 五未	五辰, 五酉, 五未	五辰, 五酉, 五未
	절기	入節先後各一日凶 (素問云前後各五日)	入節前後各一日	入節前後各一日 (素問云各五日)
	달 모양	<내용없음>	弦, 望, 晦, 朔	弦, 望, 晦, 朔
남녀	男忌除, 男忌戌	男忌除日及戌日	男忌除戌	
	女忌破, 女忌己	女忌破日及己日	女忌破己	
	<내용없음>	男女俱忌滿日	<내용없음>	
	壬辰 甲辰 己巳 丙午 丁未等日 男忌鍼灸	壬辰 甲辰 己巳 丙午 丁未日 男忌鍼灸	<내용없음>	
甲寅 乙卯 乙酉 乙巳 丁巳等日 女忌鍼灸	甲寅 乙卯 乙酉 乙巳 丁巳日 女忌鍼灸	<내용없음>		
차이 보인 내용	-	戊午 甲午等日	病人本命日	
	甲辰 庚寅 乙卯 丙辰 辛巳 甲子 壬子 丁巳 辛卯 癸卯 乙亥等日 忌鍼灸	未辛日(扁鵲死日)		
		戊巳日		

* ()는 원문에 표시된 小字

* 짙은 색은 세 서적 모두 같은 내용을 표시

Table 3. Compare the AMFDM of Three Books - Differences

2) 傍通擇日法

둘째, 月에 따라 擇日이 정해지는 경우이다. 의서에서 이를 傍通法이라고 지칭하고 있어 ‘傍通擇日法’으로 명명하였다. 이 방통택일법은 동양학에서의 擇日法이 鍼灸學에 영향을 주어 만들어진 것으로, 禁忌의 성격에 따라 血忌, 血支, 月厭, 月忌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표에 보이는 것처럼 의서에 따라 적고 있는 禁忌의 종류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며 『東醫寶鑑』에서 많은 금기들이 새로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방향을 나타내는 ‘不向’을 빼고는 地支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

는데, 기본적으로 12일을 주기로한 禁忌의 방법인 셈이다.

正月의 경우 丑日은 血忌·血支·月殺·季忌·天滅에 해당하며, 巳日은 月刑·月害, 未日은 瘟瘧, 戊日은 月厭·月忌·大殺에 해당하여 침구를 시행할 수 없다. 반대로 卯日은 天醫로서 시술하기 좋은 날이 된다.

하지만 기준이 많다보니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2月에는 吉日인 天醫와 忌日인 血支가 같은 寅日이며, 7월과 8월의 天醫는 각각 酉日과 申日로서 瘟瘧일과 겹친다. 이런 문제는 6, 9, 12월에도 발생한다. 따라서 실제 임상에서 이 표를 기계적으로 대입하여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중요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응용되었을 것임을 추측할

서적 및 제목	吉	忌												
		丑	丑	辰	辰	巳	巳	午	午	未	未	申	申	酉
『鍼灸擇日編集』 推天醫吉日及雜忌傍通法	方	○	○	○	○	○	○	○	○	○	○	○	○	○
『東醫寶鑑』 每月諸神直日避忌傍通圖	方	○	○	○	○	○	○	○	○	○	○	○	○	○
『鍼灸經驗方』 每月諸神直日避忌傍通圖	方	○	○	○	○	○	○	○	○	○	○	○	○	○

* 瘟瘧과 不向은 『鍼灸經驗方』에서 每月諸神直日避忌傍通圖와는 별도로 기록되어 있지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Table 4. Compare the Extensive-AMFDM of Three Books

서적	편명	기준	주기	예시(시작)	비고
東醫寶鑑	千金方推四時人神忌	季節	1년	春左脇	
	千金方十二支人神忌	十二支日	12일	子日目	
	千金方十干人神忌	十干日	10일	甲日頭	
	千金方逐時人神忌	十二時	1일	子時踝	
	千金方日辰忌	陰曆日	30일	初一日足大指	『東醫寶鑑』 逐日人神所在
	千金方十二部人神忌	12日과 時間	12일	建日申時頭	
	膻穴經四時太一神忌	節氣와 甲子日	1년	左足 應立春 其日戊寅己丑	『東醫寶鑑』 身形應九野
	膻穴經太一人神忌	節氣와 45日	360일	冬至節 一日 左腰尻下竅	『東醫寶鑑』 太乙遊八節日數 『鍼灸經驗方』 太乙遊八節日數
	千金方九部人神忌	<不明>	90일	一 臍	
	明堂經尻神法	<不明>	90일	一 踝	
	千金方推十二部人神法	<不明>	96일	一 心	
	病源論年人神忌	<不明>	100일	六 神在膊	
小治	九宮圖	節氣	1년	一北坎 冬至 叶蟄宮 忌腰尻	
	身形應九野	節氣와 甲子日	1년	左足 應立春 其日戊寅己丑	『鍼灸擇日編集』 膻穴經四時太一神忌
	太乙遊八節日數	節氣와 45日	360일	立春節 一日 忌左腳足	『鍼灸擇日編集』 膻穴經太一人神忌
	九宮尻神圖	八卦	<不明>	坤蹠震膈指牙上	
	九宮尻神禁忌				
	逐日人神所在	陰曆日	30일	一日在足大指厥陰分	『鍼灸擇日編集』 千金方日辰忌
鍼灸經驗方	太乙遊入節日數	節氣와 45日	360일	立春 一日 左腳	『鍼灸擇日編集』 膻穴經太一人神忌

* 진한 색은 서적간의 공통 내용을 표시

Table 5. Compare the Spirit-Existence-AMFDM of Three Books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癩瘡이다.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침구택일 기사들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忌日 가운데 하나로 癩瘡를 뽑고 있다.⁹⁾ 그런데, 癩瘡는 『鍼灸擇日編集』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東醫寶鑑』에서부터 등장하게 된다. 이는 癩瘡이 조선 초기에는 인식되지 않았다가 조선 중기에 이르러 중요하게 생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人神所在法

셋째, 人神所在法은 太乙 혹은 人神의 이동을 기준으로 한 금기법으로 『東醫寶鑑』의 ‘逐日人神所在’의 문장을 근거로 ‘人神所在法’이라고 명명하였다.

한의학에는 시간에 따라 氣가 인체 각 부위를 순환한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내경에서 衛氣의 운행에 대해 설명한 바 있으며¹⁰⁾, 금원시대 유행한 子午流注針法¹¹⁾ 역시 이러한 개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擇日法에서는 太乙 혹은 人神이 인체 각 부위에 머무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보고, 그 시간에 그 부위에 대해서는 시술을 금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개념은 단순하지만 人神이 어떤 시간에 어떤 부위에 머무게 되는가에 대한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한다. 세 의서에 실려 있는 관련 택일법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人神所在法은 『鍼灸擇日編集』에 가장 많은 종류가 실려 있었다. 크게는 계절을 기준으로 한 것에서부터 짧게는 하루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까지 다양했다. 말미에는 90일, 96일, 100일을 기준으로한 擇日法도 있었는데,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았다.

『東醫寶鑑』에 이르러서는 내용이 하나의 논리 속에서 설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다양한 기준들을 1년 주기로 단일화 하고, 節氣와 季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았다. 기술 방식에 있어서도 人神의 흐름과 절기의 흐름을 함께 보여주는 九宮圖를 통해 擇日法 전체의 개요를 제시하였고, 太乙遊八節日數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太乙遊入節日數의 내용을 한 장의 도표로 간략화 하였다. 그러면서도 ‘九宮圖 - 太乙遊入節日數’라고 하는 『東醫寶鑑』 침구택일법의 논리를 그대로 담고 있다.

조선시대 침구택일법의 발전을 이들 서적을 중심으로 간단히 요약하자면, 『鍼灸擇日編集』을 ‘정리와 전문화’, 『東醫寶鑑』은 ‘이치적 정립’, 『鍼灸經驗方』은 ‘실용적 간이화’으로 의미규정 할 수 있다.

『鍼灸擇日編集』에서 『東醫寶鑑』을 거쳐 『鍼灸經驗方』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주목할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癩瘡日의 출현과 方向에 대한 인식이다.

癩瘡日은 禁忌日 가운데 하나로 『鍼灸擇日編集』에는 없다가 『東醫寶鑑』에서는 每月諸神直日避忌傍通圖에 삽입되었다. 『鍼灸經驗方』에 이르러 每月諸神直日避忌傍通圖에 있던 癩瘡日을 따로 칠언절구로 독립시켜 표시하였다. 鍼灸擇日法이 갈수록 간략화 단순화 되었던 것에 반하여 癩瘡日에 대한 내용은 오히려 점점 더 강조된 셈이다.

승정원일기에 언급된 침구택일 관련 기사들을 열람해 보면, 무엇보다도 온황일의 존재가 눈에 띈다. 여기에 관한 연구는 후에 이루어지겠지만, 양자 모두 조선 중기 이후 癩瘡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음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方向에 대한 인식이다. 『東醫寶鑑』에는 每月諸神直日避忌傍通圖에서 不向(않지 말아야 할 방향)을 기재하였고, 말미에는 「向法」을 두어 계절에 따라 환자의 올바른 방향을 설명하였다. 『鍼灸經驗方』에서도 「不向」을 통해 매 달에 회피해야 할 날이 있는 것처럼 회피해야 할 방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鍼灸擇日法 안에 방향에 대한 내용이 생겨난 것은 『東醫寶鑑』에서 이루어진 이치 정립 과정에서 『內經』의 八風論 등이 도입되면서 방향에까지 인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양학에서는 東이라는 방향과 春이라는 시간을 木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추상화하는 경향이 짙은데, 이런 학문적 풍토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 시켰을 것이다.

III. 결론

『鍼灸擇日編集』, 『東醫寶鑑』, 『鍼灸經驗方』에 나타난 침구택일법을 각각 살펴보고, 이들 내용을 비교하여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鍼灸擇日法에 單純擇日法, 傍通擇日法, 人

神所在法의 세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조선시대 침구택일법의 발전을 이들 서적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여러 의서의 침구택일 법을 모아 상호 비교하고 정리하여 침구택일을 하나의 전문 영역으로 확립한 『鍼灸擇日編集』을 ‘정리와 전문화’의 단계로, 침구택일법의 논리를 人神을 중심으로 논리화 시킨 『東醫寶鑑』을 ‘이치적 정립’의 단계로, 그리고 임상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간략하면서도 단순화 시킨 『鍼灸經驗方』을 ‘실용적 간이화’의 단계로 규정할 수 있었다.

침구택일법 연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1) 이재동 김남일, 『중국 침뜸의학의 역사』, 서울:집문당, 1997:219-249.
- 2) 全循義 金義孫, 『鍼灸擇日編集』, 北京:中國書店, 1987.
- 3) 김두중, 『韓國醫學史』, 서울:탐구당, 1981:14-16.
- 4) 許浚, 『東醫寶鑑』, 서울:남산당, 1991.
- 5) 오준호, 『東醫寶鑑 鍼灸法의 醫史學的 研究:精氣神 및 五臟을 中心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6: 1-3.
- 6) 許任, 『鍼灸經驗方』, 행림서원, 1943.
- 7) 박문현, 『許任 鍼灸經驗方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2: 7-9.
- 8) 박문현, 『許任 鍼灸經驗方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2: 82-83.
- 9) 국사편찬위원회. “仁祖 21년 7월28일” 承政院日記, <sjw.history.go.kr>, (2009.7.29).
- 10) 河北醫學院, 『黃帝內經靈樞校釋 下冊』,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5:357-372.
- 11) 李磊. 『子午流注納甲法的研究和應用』,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1-8.